

군산시 - 노동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물품이동장비·건설기계 재취업·드론 전문가 과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효과 목적

군산시는 최근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고용위기 지원 정부추경 선정사업과 관련해 군산고용노동청과 지원의정을 체결했다.

이번 정부추경 선정사업은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5개 권역(전북·전남·부산·울산·경남)에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추경이 통과됨에 따라 진행됐다.

이와 관련 시가 진행하게 되는 사업은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물품 이동장비 및 건설기계 재취업 교육과정과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4차 산업과 연계한 드론 전문가 과정이다.

군산시는 최근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고용위기 지원 정부추경 선정사업과 관련해 군산고용노동청과 지원의정을 체결했다.

박이석 일자리담당관은 “이번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는 최근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고용위기 지원 정부추경 선정사업과 관련해 군산고용노동청과 지원의정을 체결했다.

의산시, 올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의산시가 2018년 전국체전 대비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2018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동시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7월 3일 까지 14일간이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8명을 선발, 8~11월, 공공근로사업은 33명을 선발, 8~10월 동안 운영된다.

참여자격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모두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기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이다.

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의료, 주거, 교육은 가능),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공공 숲 가꾸기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는 제외한다.

신청 희망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또는 공공근로사업 중 한 가지 사업에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건강보험증, 가점대상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등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생경제과(☎ 063-859-5237), 읍·면사무소 등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의산=우병희기자

군산해경, 해양오염사고 대비 합동훈련 실시

17개 행정기관·민간업체 참여
선박 19척, 연인원 200명 동원



지난 12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옥도면 비응항 서쪽 5km 해상에서 해양오염사고 대비한 2018 해상방제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심이 낮아 대형 방제선박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전문적으로 훈련했으며, 국내 유일의 항공방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민관 헬기에서 직접 오일펜스를 운반한 뒤 기름화산을 막는 훈련도 진행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과 민관 협업능력을 끌어 올리는 한편 사

고 예방과 관심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국 서장은 “해양오염 대비의 첫 번째는 사고 예방, 두 번째는 초동조치 그리고 마지막이 화산된 기름을 회수하는 방제조치다”며 “어느 단계 하나 소홀한 없이 깨끗한 전북도 바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의산시, 6월 자동차세 납부

의산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9,486건 120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의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와 건설기계(컴프터·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원 부상 소유자이며 지난 1월과 3월 자

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기유공자 및 장애인 등)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차량의 경우에는 6월에 연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의산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

/의산=우병희기자

군산·의산 선거 이모저모



군산시 종양동 제1투표소(종양동 주민센터)에는 부모, 자녀, 손자에 이르는 3대가 함께 방문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부모와 자녀, 손자까지… 3대 함께한 투표

군산 회현면 1919년생 최고령자 투표 참여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군산시는 선거인수 22만3천484명이 8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먼저 지난 12년 동안 시장을 책임진 문동신 군산시장 부부가 13일 오전 6시 10분 금광베네스타 아파트 요ガ실에 마련된 나운3동 제9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디딤으로 군산시 종양동 제1투표소(종양동 주민센터)에는 부모, 자녀, 손자에 이르는 3대가 함께 방문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특히 회현면 최고령자인 유정

/군산=김정훈기자

의산 111세 할머니도 주권 행사

농촌지역 투표 행렬 줄 이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13일 오전 의산시 종양동 제2투표소인 종양초등학교에서는 익산지역 유권자 가운데 최고령자인 최모 할머니(111세, 1907년 생)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 관심을 끌었다.

종양동 지역 한 주민은 “이 할머니 본인이 실제 나이는 85세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주민등록상 나이와 무려 26세 차이가 나는 셈이다”고 말해 주변 주민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특히 최 할머니가 이날 정정한 모습으로 훌자 투표장에 나와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져 도저히 111세의 나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투표장 인원 관계자들의 말이어서 실제 나이에 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는 전언.

/의산=우병희기자

어린이 행복도 군산
동북아 경제 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컨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어브 군산 · 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GUNSAN CITY